

## 떠나는 신안 공무원

### 나홀로 섬 근무·사직·전출 잇따라

### 郡, 수당 현실화 등 붙잡기 안간힘

신안군이 소속 공무원 붙잡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신안군에 최근 3년간 임용 후 곧바로 사직한 공무원이 23명에 달했으며 타 지자체로 전출한 경우도 55명이나 됐다.

이처럼 사직이나 전출이 늘고 있는 것은 교통, 교육, 문화 여건이 열악한데다가 가족과 떨어져 섬에서 혼자 살아야 하는 어려움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현재도 타 지자체 전출을 희망하는 직원들이 50여명에 달하는 등 안정적인 근무 여건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공무원 이탈방지를 위해 최근 지방공무원 전출에 따른 규정을 만들고 수당 현실화 등 대책을 마련중이다.

군 관계자는 “신안군에서 4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전출 동의 해 주고 신규 직원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일정기간 수습 후 섬 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라면서 “3만~6만 원으로 돼 있는 섬 근무 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 땅끝마을 전파 도달 확인 조형물 설치

한국전파관리원(원장 최수만)은 지난 26일 해남군 송지면 땅끝전파대 입구에 전파 확인조형물을 설치했다.



〈사진〉 전파확인조형물은 전파가 한반도 땅끝에까지 원활하게 도달하고 있다는 표시로 제주도 마라도와 통일전파대, 백령도에 이어 4번째로 설치됐다. 한국전파관리원은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으로 지난 7월 한국무선관리 사업단에서 분리돼 설립됐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 나주 다도면 도래마을 1930년대 한옥

# ‘시민 유산’으로 보존 된다

### 내셔널트러스트 기금으로

### 1억원에 매입 소유권 이전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도래마을 안에 자리한 근대 한옥이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이사장 윤상구)에 의해 ‘시민 유산’ 4호로 선정돼 영구보존된다.

재단측은 유한김벌리의 후원과 자체 모금을 통해 1억여 원을 마련, 나주 한옥을 매입해 지난 10월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1930년대에 건립된 나주 한옥은 본채·대문채와 마당을 포함해 318평 규모로, 본채 사랑방과 부엌 공간 등이 근대적 건축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도래마을 역시 고유 경관이 잘 보존돼 있다.

재단측은 내년 상반기 일반 공개를 목표로 현재 한옥 복원 및 보수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개관후 안채에 ‘나주반(羅州盤=전통밥상)’을 전시하는 한편 도래마을 고유의 마을 생활상과 역사를 보여



내년 상반기 공개를 목표로 복원 및 보수작업이 한창인 나주시 다도면 근대 한옥.

주는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어현숙 문화유산기금 사무국장은 “최근 이 지역에 현대식 건축물이 들어서는데 전통마을 고유의 모습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나주 근대 한옥은 사람채가 안채와 같이 배치되는 등 근대 건축 및 가족생활사를 살펴볼 수 있는 문화유산”이라고 말했다.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은 (사)한국 내셔널트러스트가 2002년 매입한 ‘최순우(고교미술학자·1916~1984) 옛집’의 보수와 복원을 마치고 2004년 개소하면서 소유권을 출연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여수-中 광저우 전세기 추진

### 市, 내년 2월 中 여행사 관계자·언론인 초청 팸투어

여수시가 여수-중국간 전세기 취항을 추진한다.

여수시는 내년 2월17일부터 시작되는 춘절 기간동안 여수와 중국을 오가는 전세기를 취항시키기 위해 중국 여행사와 항공사 관계자들을 초청, 팸투어를 실시한다.

이들 관계자들은 27일부터 3일간 오

동도와 진남관, 해양수산과학관, 향일암 등의 관광에 나섰다.

초청된 인사들은 중국 광저우와 심천, 주해지역 여행사 관계자들과 남방항공 관계자 등 24명이다.

이번 팸투어는 여수시가 주최하고 지구촌여행문화원이 주관한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 해양 오염사고 신속대응

### 서해안 기동방제팀 운용

목포를 비롯한 완도, 전북 군산, 태안 지역의 해양 오염사고 발생에 신속 대응할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기동방제팀이 27일 발족했다.

기동방제팀은 방제 기술반 등 3개 반 11명으로 구성됐다. 방제팀은 평상시에는 각 해경서에서 방제장비 운용과 교육 훈련 등을 통해 방제능력을 배양하고 대형 해양오염 사고 때는 사고 해역에 투입돼 맞춤형 방제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목포=이상규기자 lsh@

## 함평 노인대학 첫 수료생 40명 배출

### 오늘 함평 학습관 수료식

호남대학교 평생교육원 부설 ‘함평 노인대학’(학습관장 임영선 박사) 제 1기 수료식이 이현청 호남대 총장과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함평 학습관에서 열린다.

함평 노인대학은 지난 9월 초 호남대 평생교육원과 함평교회(당회장 황상길 목사)가 산·학 협정을 체결, 함평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40명을 대상으로 개설됐다.

10월 초부터 12주 동안 개설된 함

평 노인대학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건강과 국악·남도문화 답사·컴퓨터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사진〉

함평교회는 교회 교육관내에 학습장을 마련, 수업료를 비롯해 중식 등 모든 비용을 전액 지원했다.

한편 40명을 뽑는 제 2기 모집에 120여 명이 지원,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함평 노인대학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의 (061)322-2588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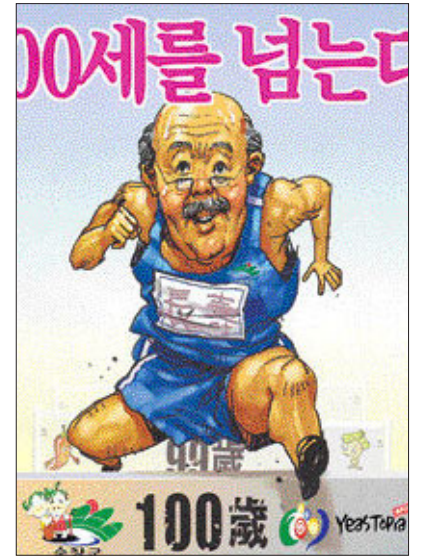
## ‘이곳은 전국 제1의 장수마을’

### 순창군, 이미지 간판 설치

청정 장수촌으로 명성을 쌓아온 순창군 이미지 간판을 활용, 전국 제 1의 장수마을을 홍보에 나섰다. 순창군은 내년 1월 중순까지 1억8천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로 12m, 세로 15m, 높이 30m 크기의 철제 홍보간판을 국도 24호선과 88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금곡면 고례리 마을 부근에 설치할 계획이다. 〈사진〉

이미지 간판은 육상선수 복장을 한 건강한 모습의 노인이 100세의 벽을 상징하는 허들을 뛰어 넘는 모습을 담았다.

/순창=이충식기자 hslee@



**유해조수 구제 및되지 잡는 공기총 출현**

제1차 전국 공기총 대회(12월 27~29일)에 참가할 선수들을 위한 공기총을 판매합니다.

**기밀총포무역**

010-22-00117 526-1188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월 50% 절약되는 친환경 난방이 실현됩니다.

**(주)태양상사**

TEL: 06241262-0101

**수표** 062-7544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062-256-3408

**(주)유건부동산** 062-256-3408

**대지부동산** 062-256-3408

**부동산 교환**

**가상부동산건설**